

전북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올 한해 성과

고부가 문화자산 산업화 기반으로 다져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올 한해 전북이 가지고 있는 높은 문화의 힘을 발휘했고 한국문화(K-컬처)의 본향으로서 문화산업화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문화분야에서는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상회복 단계에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지역거점 문화예술 공간 마련과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많은 성과로 인정받는 한 해였다고 자랑했다.

주요성과로는 고창군이 완주, 익산에 이어 3연속 법정문화도시 선정되었고,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도 광역단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박람회 광역단체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더욱이 체육분야에서는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대형 체육인프라 건립이 확정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국내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도지사 공약인 국립 전북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월드컵 스포츠타운 조성,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의 예산을 순탄히 확보하였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문화재 1,000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웅진전적'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듭장 등 7건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북 국보·보물 기하특별전'을 열어 문화유산의 미래가치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문화 자존감을 지난 9월 전국 유일하게 4대 중단이 참여하는 2022년 세계종교문화 축제로 가일층 견고해 졌다.

지역발전 선도 문화도시 3연속 선정 전북 문화유산 1000건 시대 문 열어

우수선수 발굴 등 전문체육 강화와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체육스포츠포지 지정 확대로 전 도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문화유산분야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켜켜이 묻어있는 전북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관리하면서 후배에게 왕도, 조선왕조의 분향, 동화농민혁명 등 차별화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격상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뜻깊은 성과가 가득한 가운데 눈에 띄는 성과는 역사문화경관비법 '후백제문화권' 추가 개정이인 국외 상임위를 통과하여 국비확보의 기반이 마련 되었다.

또한, 그간의 문화유산 발굴과 보전에 힘써온 결과 지난 7월에 지정

'종교 자연과 인류의 벗'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종교간의 이해의 장을 도민 화합으로 연결시켰다.

각 분야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 14위의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과 전라도 천년사 출판 기념하기 위한 봉정사키 잠정 연기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실패를 고분수치로 삼고, 밀려들어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천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도민들을 위해 전력 질주할 것이다"며 "김관영 도정의 핵심 키워드인 문화자산을 산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지역에 최대 6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지난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제시 광활면 비닐하우스 단지를 찾아 김관영 도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과 함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폭설 응급복구 위해 특교세 50억 지원 요청

김 지사, 김제 비닐하우스 붕괴 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김관영 도지사가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김관영 지사가 김제시 폭설 피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번 대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도로 제설,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북 방문은 전라관에 6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림에 따라 피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신속한 제설과 피해복구 조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장관은 김제시 비닐하우스 붕괴 현장에서 "겨울 초입에 이례적인 폭설과 한파로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해를 입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

기관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철저한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폭설 피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한 뒤 "2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일부지역에 최대 60cm 가까운 많은 눈이 내려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적극 협조해 사후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복구에 총력을 다해 빠르게 일상이 회복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눈 쓸어내리기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께도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1일부터 내린 대설로 인해 현재까지 접수된 전북지역 피해현황은 건축물 붕괴 5건, 비닐하우스 31동, 축

사 16동 등 52건의 시설피해와 상수도 단수 1건으로 집계됐다. /김재훈 기자·김제=곽노태 기자

나인권 의원, 올해 빛낸 대한민국 인물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에 따른 공로로 최근 '2022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대상'을 수상했다.

나인권 의원은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재훈 기자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총 638조7000억원 규모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000억원이 축소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639조 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용자 사업 등 확대 예산도 6630억원 증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제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9억90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

단(39억7000만원) 운영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작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여야의 신경전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기한(12월 2일)과 정기 국회 종료일(9일)을 모두 지나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4년 국회산정회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합의 처리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관리정책 필요

전북연구원, 전기차 보급 추진 관련 도 차원 대응방안 제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 기반시설인 충전시설 보급 및 관리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정책브리핑(장남정 선임연구위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정책현황을 분석해 이슈를 도출하고, 전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전북도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3,220대가 운영 중이며 충전시설 1대당 전기차 2.6대로 충전시설 보급률은 전국 평균(2.9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이용자/관리자/공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결과 전기차 이용자는 충전시설 이용 시 플러그 훼손, 카뎀 호환성, 다수의 카드별급 등의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전자파, 갑

을 구축한다.

체계적 충전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 보급 관련 계획수립, 민간공공협력 모델 개발, 수요 맞춤형 충전시설, 통합카드 관리 등 충전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같은 최소화를 통한 건강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자, 관리자,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한다.

끝으로 충전시설 신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을 위해 충전시설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 인프라 확대, 유지관리(검사소, 정비소 등) 인프라 확충, 거점 충전시설 도입사업 등을 추진한다.

장남정 박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 구축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전라북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관련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을 구축한다.

체계적 충전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 보급 관련 계획수립, 민간공공협력 모델 개발, 수요 맞춤형 충전시설, 통합카드 관리 등 충전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같은 최소화를 통한 건강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자, 관리자,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한다.

끝으로 충전시설 신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을 위해 충전시설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 인프라 확대, 유지관리(검사소, 정비소 등) 인프라 확충, 거점 충전시설 도입사업 등을 추진한다.

장남정 박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 구축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전라북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관련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다함께! 더 나은! 다시 새롭게!

다함께 미래가치를 높이는 든든한 군산대학교

KSNU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